

텍스트(Text)로서 과거 건축과 건축사 해석에 대하여

姜 熾

(경성대학교 건축공학과 부교수)

I. 건축사가의 관점과 解釋의 문제

건축사의 핵심적인 문제는 과거의 건축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평가하는 일이다. 다시 말하자면 과거의 건축물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일체의 맥락(context)을 텍스트 삼아 해석하는 일이며, 그것은 결국 시간 차원에서 건축의 의미와 가치를 구하는 일이고, 건축의 본질에 대한 대답을 시도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건축사의 모든 문제는 해석으로 귀결된다. 역사란 곧 해석을 의미하며 건축사의 역사는 건축에 대한 해석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건축물이 왜 거기에 존재하며, 왜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가?”하는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고자 하는 史家의 부단한 노력이며,¹⁾ 거기에 대한 역사가의 답변은 저마다 다른 관점과 입장으로 말미암아 상이한 양상을 보여왔다.

과거의 건축물들 중에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걸러내고 분류하며 거기에 역사적 관련성을 부여하는

史家の 작업 자체가 해석을 내포한다. 그것은 史家가 텍스트에 접근할 때 갖고 있는 관점 혹은 구사하는 개념적 도구에 의해 수행된다. 과거 사실의 역사적 배열과 연속성의 부여 역시 史家の 관점에 의해 발전적이라고 생각되어진 순서에 맞춰진 것에 불과하다.²⁾ 건축사의 시대구분이란 것도 역사적 사실의 기록이라기보다 역사 개념의 범주화의 성격이 더 강하며 결국 해석의 문제인 것이다.³⁾

이렇듯 건축사 해석은 건축사가의 관점과 이데올로기적 입장에 의해 수행된다. 그의 관점과 입장은 물론 개인에 속한 것이지만 동시에 그가 속한 시대의 문화적, 사회적 조건 내에서 형성된 것이기도 하다. 건축물에 대해 사고하고 분석할 때 역사가는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여러

1) S. Kostof, 『A History of Architec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pp.18

2) G. Kubler, 『The Shape of Time:Remarks on the History of Thing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2, p12. 결국 “史家の 임무는 시간을 추적하는 일이다. 그는 시간의 모습을 탐지하고 묘사 한다.”

3) A. Hauser, 『예술사의 철학』, 황지우역, 돌베개, pp.177.

결정 인자(determinants)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⁴⁾ 그는 어떤 선입견, 가정, 편견, 지식, 열망 없이 역사적 사유를 진행시킬 수 없다. 그의 학문적 훈련, 지식, 경험은 그의 해석 작업을 추진시켜 나가는 知的 받침대(platform)를 제공한다.

개인으로서 역사가는 동시에 사회적 현상, 즉 시대와 환경의 산물이기도 하다. 그는 외적 조건에서 차단된 진공 속에서 과거 건축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시대의 지적 분위기와 인식의 틀(epistemological framework), 혹은 패러다임 내에서 해석을 진행해 나간다. 역사가는 그의 시대가 그에게 허용한 것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측면에서 역사가는 시대의 대변자이기도 하다. 역사가만은 역사적으로 초연한 듯이 생각하는 태도는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러기에 사가의 건축에 대한 이해와 역사적 조망(perspective)은 시대에 따라 그의 입각점이 계속 바뀌기에 달라지기 마련이며, 따라서 건축사 해석이 계속 변모하며 새로운 시야와地平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시대의 경과에 따라 상이한 건축사 해석이 등장하는 한 이유이다.⁵⁾

역사가는 역사 해석을 자신의 관점과 역사적 상황에 의해 조건 지워진 다소 임의적인 가정에서 시작한다. 그는 어떤 사건에 미리 내린 가설적 해석에서 진행해 나가며, 과거 사실과 그에 대한 설명 사이에 긴장이나 모순이 생길 때마다 해석을 수정해나간다.⁶⁾ 또한 역사가는 개별적이고 고립된 개개의 건축물과 사건들을 상호 관계 지으면서 그것들의 一回性を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관계나 구조 속에서 조명하고자 한다.⁷⁾ 따라서 어떠한 건축사도 '일어난 그대로' 묘사 기술될 수는 없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의 손실을 어느 정

도 무릅쓰고 추상화하고 일반화하여 사가는 과거의 성격을 규정짓고 개념화한다.⁸⁾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해석은 비로소 존재한다. 그것은 과거 건축의 모습과 의미를 하나의 체계나 논리로 제시하는 작업인 것이다.

역사가의 건축사 해석은 일차적으로 과거의 건축물을 텍스트 삼아 수행된다. 건축사 해석의 중심이 건축물인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런데 텍스트로서 건축물은 해석 작업과 관련하여 사가에게 이중적 과제를 부여한다. 우선 건축물은 과거의 건축을 이해하기 위한 독해의 대상으로 존재한다. 역사가는 건축사를 통해 그 시대의 건축에 관한 정확한 모습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그 건물이 당대에 갖고 있었던 의미와 가치를 구하고자 한다. 그러나 어떠한 건축물도 역사가에게 독해되고 해석되기 위하여 세워진 것은 아니다. 건축물은 아무 것도 말해주지 않는다.史料로서 건축물을 해부하고 분석하여 건축가의 의도와 사실들을 캐내고 어떤 '설명'을 제시하는 이는 역사가 자신이다.⁹⁾ 이는 건축(사)에 대한 읽(지식)을 구하는 일이다.

하지만 건축의 해석이 이런 지식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건축물은 하나의 '작품'으로, 혹은 '존재'로서 서 있다. 그것은 어떤 완결성과 생명을 지니고 사가에게 다가와서 말을 건다.¹⁰⁾ 그것

8) 건축사에서 樣式(Style) 개념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건축 양식을 역사적 實在가 아니라고 부인하기도 어렵지만 건축을 범주화하여 이해하고자 하는 하나의 추상적인 집합 개념임에도 틀림없는 것이다. 어떠한 건물도 특정 양식을 완벽하게 구현한 예는 없다.

M. Shapiro, "Style" in 『Anthropology today』, ed by Kroeb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3, P.278-303.

9) J. Rykwert, "A Health Mind in a Health body?" in 『History in, of and for Architecture』, ed. by J. H. Hancock, University of Cincinnati, 1980. pp. 44-45

10) 예술사, 건축사의 현상학적 접근이 이런 시각에서 작품을 해석한다. 한 예로 G. Bachelard는 예술 체험에 있어 상상력의 독자성, 창조의 비결정성을 강조한다. G. Bachelard, 『La Poétique de L'espace』 (공간의 시학), 광광수역, 민음사, 1990(원전 1958)

4) W. Eugene Kleinbauer, 『Modern Perspective in western Art History』, N. Y., Holt, Reinhart and Winston, Inc, 1971. PP. 13

5) 좋은 예가 근대 건축의 사학사이다. 짧은 시간의 경과 가운데 사학사적 변화 상과 해석의 다양성은 놀라운 바 있다.

6) A. Hauser. Op. Cit. , pp. 165

7) 이 광주 외편, 『歷史理論』, 문학과 지성사, 1987. p12

의 독자적인 개성은 과거의 생성의 조건과 무관하게 지금도 여전히 설득력을 지니고 어떤 건축적인 '체험'을 요청한다. 건축물은 분석과 설명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느끼고 이해되어져야 할 존재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파르테논이나 무량수전 같은 건축물을 독해하기 위해서는 당대의 종교적, 정치적, 사회경제적 상황, 건축 생산의 기제(mechanism)나 기술적 조건, 주도적인 양식과 미적 취향, 동시대인의 심성과 관념, 지리적 기후적 풍토 등의 정보를 얻는 일이 필수적이다. 보다 많은 정보는 보다 정확한, 혹은 타당한 분석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그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건축물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텍스트로서 건물과 그 주변에 대한 '지식' 및 그 체계화 이상의 그 무엇, 즉 건축물과 해석자 간의 '만남'(혹은 對話)이라고나 부를 어떤 '경험'이 요구되는 것이다.

K. Marx는 예술작품의 생성이 특정한 사회적 조건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작품이 생산되었던 당시의 조건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술적 향유를 허락해주고,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모델로서 여겨진다는 사실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한 적이 있다.¹¹⁾ 따라서 건축작품의 발생에 개입된 역사성과 작품이 갖는 영향의 영속성은 별개의 것이다. 건축물은 그 속성상 우리에게 심미적 이해, 존재로서의 이해를 요구한다. 이것 없이 건축(사)의 이해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것은 마치 인간의 이해가 해부학적 지식이나 생리적 분석만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과 비슷한 이치이다. 거기엔 항상 '의미'와 '가치'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 이점에 있어 자연과학과 역사학의 결정적 차이가 있으며, 또 일반 사학과 건축사학의 상이점을 찾을 수 있겠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일은 건축사에 있어서 의미와 가치라는 것이 항상 해석자의 입장과 처지와 결부되어 내려진다는 사실이다. 역사는 항상 특정한 관점에서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특

정한 이유에서 수행된다. 모든 형태의 과거는 오로지 어떤 관념(idea)의 스크린을 통해서만 보여질 뿐 아니라, 해석은 항상 관찰자(史家)의 입장과 관계되기에 자서전적 성격을 지닌다.¹²⁾ J. Rykwert의 지적대로 역사는 우리가 과거와 관계를 맺는 방법이다. 따라서 과거와 관계를 맺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다양한 해석상의 입장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한 사가가 과거와 맺는 관계와 해석이 타자의 그것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기에 난점이 있고 그저 '다르다는 것' 뿐이다. 뿐만 아니라 중립적인 건축사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더욱이 최종의 결론적인 건축사 해석 같은 것도 있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까다로운 건축사 해석상의 문제들과 부딪힌다. 매시대마다 건축사 해석이 바뀐다면, 그리고 사가의 관점의 차이에 따라 상이한 건축사가 가능하다면, 건축사 해석의 확실성(객관성)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한 건축사가 가지는 해석상의 타당성(validity)은 무엇이며, 하나의 해석이 다른 것 보다 더 가치 있다고 인정할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들 문제는 실상 난해한 歷史哲學的 쟁점들이며 '인간 이해의 學'이라 불리는 해석학에서 다루는 주제(subject matters)들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사 해석이 가치는 본질적 측면을 조명해 보고 해석의 성격과 조건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II. 건축사 해석의 성격과 조건

그리스 神話에 최초의 건축가로 등장하는 이는 Daedalus이다. 그는 크레타 섬에 迷宮(labyrinth)을 건설함으로써 전설상 최초의 건축가라는 지위를 얻는다. 그러나 그는 복잡한 미궁을 완성하고 나서 자신이 만든 미궁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비행구름을 타고 겨우 그곳

11) Henry Arvon, 'Marxist Esthetics', (마르크스主義와 예술), 오병남 외역, 서광사, pp. 31-32

12) J. Rykwert. Op . Cit., pp. 44-45

을 탈출할 수 있었다. Ariadne는 용사 Theseus에게 실꾸러미를 주어 그로 하여금 미궁에 들어가 괴물 Minotaur를 처치하고 무사히 길을 찾아 빠져나올 수 있게 한다.

여기서 Daedalus가 최초의 건축가라면 Ariadne는 최초로 건축에 대해 해석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¹³⁾ 왜냐하면 그녀는 실타래라는 장비를 가지고 미궁을 해독하였기 때문이다. 그녀의 실타래는 개념적인 도구(a conceptual device)로서 건축을 이해하는 하나의 실마리를 상징한다 하겠다.

이 神話는 건축과 건축사의 해석에 있어 의미심장한 하나의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준다. 그것은 건축물 자체나 과거의 건축의 역사 자체는 결코 그 스스로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으며, 우리가 어떤 해석의 틀, 혹은 개념적 장비를 동원할 때에야 비로소 어떤 이야기를 들려 준다는 사실이다. 이 틀, 혹은 장비야말로 해석자가 해석 대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일을 가능케 해주는 매개물로서 해석의 수단이자 方法(method)인 것이다. 그것은 構造主義, 現象學, 分析哲學 같은 사유 방법의 체계일 수도 있고, 기계론, 유기체론, 유물론, 음양오행설 같은 세계관의 체계일 수도 있으며, 空間論이나 形態論, 혹은 類型學 같은 구체적인 건축관 혹은 건축 이론일 수도 있다.

하여튼 우리는 이러한 思考의 matrix를 통해 건축과 건축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개념적이라는 의미에서 言語的 성격을 띤다. 언어적이라는 것은 건축사 해석이 언어 표현을 통해 수행된다는 뜻을 넘어서 건축에 대한 사유 (architec-

tural thinking)와 지식(knowledge)이 언어적 기반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희랍의 크레타 미궁에 관한 신화가 건축사 해석의 한 측면을 조명해준다면, 서구 문화의 또 하나의 지주인 히브리적 사유를 담고 있는 바이블의 Babel 탑의 전설 역시 건축사 해석에 대한 중요한 시사를 던져준다.

성서는 처음에 온 땅의 말과 방언이 하나였던 시기를 상정하고 있다. 즉 어떤 의사 소통 상의 곤란도 없었던 시절인 것이다. 부족의 이름 자체가 '이름'(name)이란 뜻을 지닌 semites族은 벽돌을 굽고 역청을 발라 城과 臺를 쌓아 神이 있는 하늘까지 닿음으로써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with the aim of making name for itself)한다. 여기서 ① 하늘을 정복하고자 하는 행위-神과 동등해 지려는 시도, ② Babel 탑 쌓기-건축 행위, ③ 이름을 내고자 하는 행위-언어를 지배하려는 시도가 동일 행위로 간주되어 서술되고 있다.

神은 그들의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오만한 일을 시작하였다고 진노하고 그들의 언어를 혼란 시킴으로써 그들의 야심에 찬 사업을 좌절시킨다. 인간들은 한 언어가 여러 방언으로 갈라져 더이상 말이 통하지 않게 되고 작업을 할 수 없게 되자 탑 쌓기를 그만두는 것이다.¹⁴⁾

이 신화는 바벨탑을 쌓는 작업이 建造(construction) 행위임과 동시에 言語的 행위임을 상징하고 있다. 바벨탑의 건축의 시도는 곧 보편 언어(universal language)의 시도를 상징하며 그것은 언어를 통한 인간의 세계의 지배-神과 동등해짐-을 의미한다. 바벨탑의 좌절은 universal language의 地上에서의 불가능을 상징하며,¹⁵⁾ 언어의 다변화는 의사 소통을 위한 번역(translation) — 즉 해석 행위 — 의 불가피성을 나타낸다.

13) Beatriz Colomina는 담론의 해석 자체가 생산 행위라는 후기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Daedalus의 건축가적 지위를 부인하고 Adriadne를 최초의 건축가이자 해석자로 지목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텍스트의 생산자와 해석자를 구분하는 일반적인 관행을 따랐다. B. Colomina, 'On Architecture, Production and reproduction', in 'Architectureproduction', Princeton., revisions series Book 2, Ed. by B. Colomina, Princenton Architectural press, pp. 7.

14) 성경, 구약, 창세기, 11장 (개역 한글판), P11, 대한 성서공회.

15) 만일 보편 언어(universal language)가 가능하다면 인간의 일체의 모든 행위-언어, 예술과 역사는 즉각 이해될 수 있기에 해석은 불필요한 것이 된다.

축조에 의해 세워진 건축물 자체가 건축 언어를 구사한 건축적 담론(architectural discourse)으로서 건축적 사유의 구조물 이기에 物 자체로서 직접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意味로 '번역'되어져야 하며, 그러기에 건축물은 해석 대상으로서 迷路(labyrinth)적 성격을 갖는다.¹⁶⁾ 여기서 '인간의 언어와 의미'가 꼭 말(verbal language)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건축의 해석은 언어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再現的 兪술(discourse) — 드로잉, 사진, 모델, 도면 — 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모두는 결코 건축 그 자체는 아니고 건축의 再現(representation)으로서 번역된 것, 즉 해석 행위의 결과물들인 것이다.¹⁷⁾

인간의 해석행위를 연구하는 학문인 解釋學을 영어로 Hermeneutics라 하는데, 이 말은 어원적으로 헤르메스(Hermes)라는 제우스와 마이아(Maia) 사이에서 태어난 희랍神에게서 연유한다. 헤르메스의 임무는 神의 메시지를 인간에게 전달하는 전령의 역할이었다.¹⁸⁾ 그의 고민은 무한한 神의 말을 유한한 인간의 말로 거짓없이 '번역하는 일'이었으며, 그 임무를 떠맡으면서 헤르메스는 거짓말은 안 하겠으나 '완전한 진실성'은 보장할 수 없다고 고백한다. 그 번역이란 것이 神의

메시지를 인간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것임으로 인간의 언어와 의미로 전달되지 않을 수 없으며, 인간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헤르메스 자신의 해석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¹⁹⁾

解釋이란 시간적, 공간적 거리 혹은 문화적 거리를 극복하고 해석자가 해석 대상을 理解(understanding)하는 일이다. 다시 말하자면 外的이며 생소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무엇, 혹은 어떤 경험이 익숙해지고 現在化되어 이해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²⁰⁾ 여기서 낯설고 멀리 떨어져 있으며 불분명한 것은 해석자에게 他者로서 작용하는 이해의 대상을 지칭하는데, 그 의미가 讀解(혹은 해독)되어져야 할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텍스트'(text)라 부른다.

역사는 궁극적으로 과거를 텍스트 삼아 과거를 이해하고자 하는 활동이다. 텍스트로서 과거는 과거 그 자체가 아니라 과거 사실의 기록으로서 과거의 흔적이다. M. J. Oakeshott가 "역사는 역사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고 역사를 쓰는 것만이 역사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때,²¹⁾ 그가 의미한 것은 우리가 아는 역사라는 것이 歷史家의 해석과 記述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결코 과거 그대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가리킨 것이다. 과거는 지나가 버려 他者化되며 역사가는 과거 사실의 기록을 해석 과정을 통해 재구성하여 오늘에 재현하고자 한다.

이점은 건축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건축사에 있어서 일차적인 텍스트는 쓰여진 기록(written documents)이 아니라 과거의 건축물 그 자체이다. 그것은 때로는 오늘까지 남아서 현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과거의 건물(text)을 둘러싼 맥락(context)이 바뀌었기에 과거의 건물을 과거 그 자체라 말할 수는 없다.²²⁾ 하지만 이

16) Jacques Derridar, "Architecture ove il disidero pou arbitare", Domus, No 671, 1986, pp.24

17) Labyrinth와 Babel탑의 신화는 그것들이 '난해성'(미로)과 '미완 혹은 실패'(바벨탑)라는 은유를 지님으로서 해석 행위의 궁극적 측면을 조명하고 있기에 적절하다. 동시에 양자는 物的 구조체로서 해독되어야 할 구조를 지니기에 건축사 해석의 성격을 이중적으로 제시한다.

D. Hollier, 「Against Architecture ; The Writings of George Bataille」,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1989

'The Tower of Babel', 'The Labyrinth and Pyramid' 참고

18) Richard E. Palmer, 「Hermeneutics : intepretation theory in Schleiermacher, Dilthey, Heidegger, and Gadamer」(해석학 강의), 최 성학 옮김, 라브리, 1988(원전1969), pp. 26

19) Josef Bleicher, 「Contemporary hermeneutics」, (현대 해석학), 권 순홍역, 한마당, pp.18

20) R. E. Palmer, Op. Cit. pp.27

21) J. Ackerman, S. Kostof도 동일한 주장을 한다. J. Ackerman, 「Art and Archaeology」,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63, P.127.

22) Robert A. M. Stern은 건축사는 과거를 이해하는 한

러한 텍스트로서 건축물의 지속성(duration)과 직접성은 건축사 해석의 한 중요한 특성을 이룬다. 한편 과거 건축의 상황과 사건들의 흔적들인 기록들과 이미지들 — 사진, 도면, 드로잉 등 — 이 또 다른 텍스트를 구성한다. 이 양자를 텍스트 삼아 건축사가는 과거 건축의 의미를 독해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는 건축사 해석의 몇 가지 측면을 도식화할 수 있다. 우선 Labyrinth(迷宮)의 신화에서 우리는 건축가(혹은 생산자), 건축물, 그리고 해석자(수용자)라는 삼각 구도를 상정해볼 수 있다. 우리가 건축이라 부르는 제도, 혹은 영역(discipline)은 이 삼자간의 관계 안에서 존재한다. 건축가에 의해 건축물은 건립된다. 건축사는 건립된 건축물의 역사이다. 그러나 동시에 건축사는 건축의 수용의 역사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건축사는 역사가에 의해 쓰여지는 것이고, 그것은 곧 건축의 해석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그림 1) 한편 Ariadne의 실타래로 상징되는 해석 방법은 해석자가 텍스트에 접근하고 독해하는데 사용하는 분석의 틀을 뜻한다. 해석 대상으로서 텍스트는 물론 건물 및 과거의 사실이 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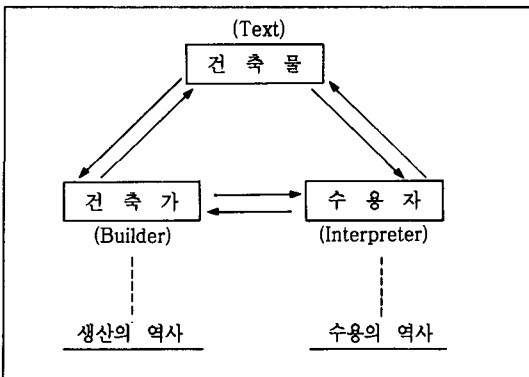


그림 1 해석의 삼각구도

방식에 불과하고 건축에서의 주된 의미와 연속성은 건물 그 자체에 있으며 건물 자체가 진정한 건축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J. Rykwert는 이런 견해를 부인하고 기록으로서 건물 자체는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으며 건축가의 개입과 어떤 종류의 해석적 메카니즘 없이 아무도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J. Rykwert, op. cit., p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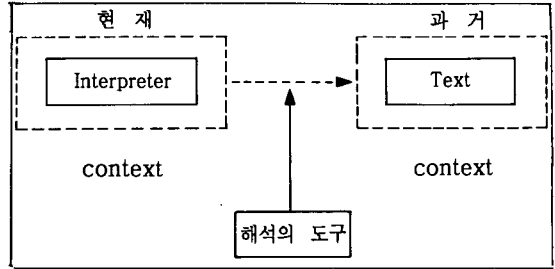


그림 2

다. (그림 2)

다음으로 건축사에 있어 해석자와 텍스트는 현재와 과거라는 시간적 거리로 단절되어 있으며 각각의 맥락(Context)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역사가는 동시대의 사회적 상황과 인식 체계 내에 조건 지워져 있으며 해석 대상(텍스트) 역시 당시의 사회 환경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생산된 것이다. 兩者의 거리를 좁히고 해석자의 의미 地平에서 텍스트에게 질문을 던지고 동시에 과거의 context 속에서 텍스트가 '말하는 바'를 포착함으로써 과거의 이해가 현재적 의미를 지니게 되는 해석적 대화가 진행된다.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건축의 해석 행위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하여 Roman Jakobson의 의사 소통(communiation)의 관계에 관한 도식을 인용해 봄이 가치 있는 일일것 같다. 그는 그의 논문 「言語學과 詩學」(1960)에서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그리고 있다.²³⁾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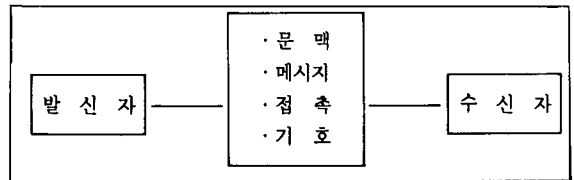


그림 3

23) Roman Jakobson, "Linguistics and Poetics", 『Language in Literature』, ed. K. Domorskd 外,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pp.66

T. Todorov, 『Mikhail Bakhitine』 (바흐친, 문학 사회학과 대화 이론), 최 현무역, 도서출판 까치, 1987(원전 1981), P. 85-96(재인용)

이 도식에서 발신자는 그가 의도하는 내용, 즉 메시지를 보낸다. 그런데 그 메시지는 흔히 발신자와 수신자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라는 기호를 통해 전달된다. 또한 이 의사 소통은 구체적인 상황이나 환경, 즉 문맥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발신자와 수신자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접촉을 맺게 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²⁴⁾

건축사의 해석이 건축물과 인간, 과거의 건축과 현재의 歷史家 사이의 일종의 소통 행위—대화—이며, 그 의미를 포착 파악하고자 하는 작업이라고 볼 때 위의 도식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변형되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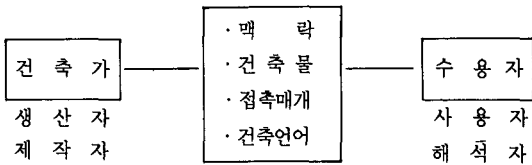


그림 4

본 도식은 그림 1의 건축가—건축물—수용자라는 삼각 구도와 그림 3의 text-context 관계의 혼합 확장형이라 볼 수 있다. 이 도식을 이제까지의 건축사 해석의 관행과 연관지어 설명해 보자.

(1) 건축가(혹은 생산자)는 어떤 설계 의도(intention)를 가지고 자기 시대의 건축 언어를 사용해서 건축물(작품)을 생산해내는 사람이다. 건축가는 건축사 연구에 있어 항상 중요한 주제가 되어왔다. 그의 삶의 배경, 건축관, 존재 양식, 설계 의도, 취향 등은 건축물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로 사용돼왔다.²⁵⁾

(2) 맥락(context)은 건축물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역사적 상황이다. 이 맥락은 두 범주로 고려될 수 있는데, 그 첫째가 당대의 건축관, 전

통, 관행(convention), 제도 같은 건축을 둘러싼 직접적인 맥락이며, 그 다음이 건축물과 건축 사회를 조건짓는 물질적 상황, 정치적 상황, 역사적 환경 같은 사회적 맥락이다. 건축은 가장 외부 조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는 분야이며 건축 생산은 이들 외부 환경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 건축 생산에 있어 사회적 맥락이 지극히 중요하며 그것에 의해 조건 지워진다는 시각을 견지하는 것이 건축의 사회적 해석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마르크스주의적 접근을 들 수 있으며 전형적인 外在的인 해석 방법에 해당한다.

(3) 건축물은 복잡한 생산 과정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그것은 일단 세워지면 하나의 客觀的인 物的 존재로서 우리 앞에 現前한다. 건축물을 이제까지 하나의 작품으로서 창조적인 조형물로 간주하고, 그 構成(composition), 양식(style)의 견지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전통이 있어 왔다. 外在的인 접근에 대립되는 內在的인 접근으로 흔히 形式主義的인 입장이라 불린다. 다른 한편으로 건축을 어떤 의미 내용의 담지자로 간주하여, 기능이나 용도, 종교적 상징이나 우주관, 미적 정서를 표상하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해석적 전통이 존재한다. 이는 觀念的인 입장이라 불리우는데, 역시 내재적인 접근에 해당한다.²⁶⁾

(4) 접촉—매개는 건축이 사용자(감상자)에게 어떤 경로나 매체를 통하여 수용되는가 하는 것이다. 우선 서 있는 건물과 수용자 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있다. 거주나 방문에 의해 건축은 직접 체험되고 이해된다. 그러나 사진이나 드로잉 같은 이미지, 평면 단면 등의 추상적인 표현 형식, 모델 등의 物理的再現 수단, 그리고 말과 글을 매개로 한 건물에 대한 진술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건축은 경험되고 이해된다.²⁷⁾ 이들 재현 매체는

24) 김옥동, 「대화적 상상력」, 문학과 지성사, 1988. pp. 15

25) 이는 Vasari의 「르네상스 예술가전」이래 건축사 기술과 해석의 한 주류로서 인물사, 建築家史라는 분야를 구성한다.

26) Wölfflin, Frankl 등의 Basel학파의 전통과 Riegl, Dvorak, Panofsky 등 Wien 학파의 전통은 형식주의와 관련된 양자의 어느 입장에 서면서 상대의 입장을 어느 정도 흡수한 내재적인 접근의 예술사(건축사)라 하겠고, 최근까지 주도적이고 정통적인 건축사학의 학맥을 이어왔다.

27) 특히 사진이 기계복제 시대에 건축의 이해와 전달

그 자체가 이미 매체의 생산자에 의해 일차 해석되어진 건축적 담론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5) 건축 언어는 건축 생산의 수단이자 재료로서 건축가가 의식, 무의식 중에 구사하는 '건축을 만들어 내는'(making of architecture) 체제이다. 建造(construction)를 위한 기둥, 벽, 보, 바닥 같은 tectonic한 요소들(elements)의 체계로부터, order나 aedicule 같은 관용어(Idiom), 그리고 그 조합과 결합 체계를 구속하는 法式(canon : 카논) 혹은 문법(grammar)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건축 언어이다. 최근 기호학의 성과로 잘 알려져 있듯이 이들 건축언어가 어떤 고정된 의미나 상징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건축 언어는 강한 사회성, 관습성, 역사성의 특징을 지닌다. 이 분야는 구조주의의 건축적 적용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6) 수용자는 건축물을 사용하고 경험하며 감상하는 인간(들)을 가리킨다. 수용자는 건축(물)을 나름대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주체이며, 건축물을 발주하고 세우며 사용평가하고, 또 그 이용방식을 변경하기도 하고 건물의 존속과 파괴를 결정한다.²⁸⁾ 이들 중 건축사가, 비평가, 이론가는 특수한 유형의 수용자, 혹은 전문화된 수용자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이론적 장비를 구비하고 텍스트에 접근하며 한 시대의 과거 건축에 대한 주도적인 견해들을 형성하기도 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텍스트(건축물)의 생산과 해석자(역사가)의 이해라는 사건 사이에 시간적

수단으로 특히 근대건축에 미친 영향력은 지대하다. K. Frampton, "A Note on Photography and its Influence on Architecture" in 'Prespecta 22, The Yale Architectural Journal', N.Y., Rizzol, 1986, p38-41

28) 수용 미학은 기존의 예술사가 주로 생산자(작가, 예술가, 건축가)와 작품에 초점이 맞춰져 해석되고 기술되어 왔다고 진단하고 그 소통과 수용의 측면에서—즉 독자, 사용자, 감상자, 해석자의 관점에서—예술사를 보고자 한다.

H. R. Jauss, 'Toward an Aesthetic of Recep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apolis press. 1982.

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며 이 시간적 거리가 일반적인 의사소통 행위와 다르게 역사 해석의 특징이자 난점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텍스트의 생산과 수용이 공간적, 시간적으로 이질적인 맥락(콘텍스트)에 속해 있을 뿐 아니라, 텍스트의 생산 이후 원래의 텍스트는 시간의 경과와 시대마다의 상이한 수용(해석)에 의해 변질되고 왜곡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건축사 해석은 지금 이곳에 주어진 — 혹은 남아 있는 — 사료를 텍스트 삼아 재구성(reconstruction)하고 과거를 재현(representation)하는 일이 된다. 그것은 결코 실제의 과거일 수는 없고 현재 이곳에서 본 과거임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과거와 전적으로 별개의 것일 수 없음도 물론이다.

이러한 역사 해석 작업은 마치 서로 아무런 연관도 없어 보이는 조각들을 연결하여 그림을 이루어 나가는 '조각 그림 맞추기'(jig-saw puzzle)와 비슷하다.²⁹⁾ 문제는 역사가가 재현하려는 과거의 모습이 어떤 것이며 그것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하는 것이다.

역사적 이해를 얻기 위해 역사가는 자신에게 주어진 무수한 사료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선택하여 정리하고 상호 연결하는가 하면, 거기에 그럴듯한 동기와 이유를 부여하여 수궁이 될 수 있는 역사적 서술, 혹은 역사적 그림(像)을 얻어내고자 한다. 이러한 서술을 읽고 우리는 과거 건축에 대하여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었다고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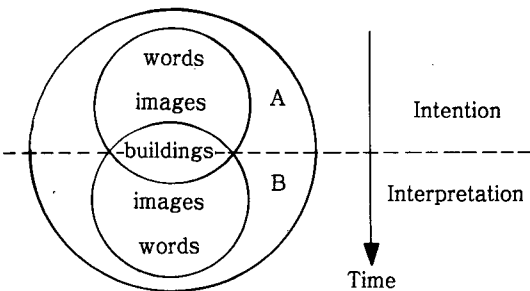
역사 해석에 있어 중요한 사실은 역사가들이 제시하는 역사상이 동일한 대상에 대해 여러가지라는 것이다. 즉 단 하나의 옳바른 답이 존재하는 조각 그림 맞추기와 달리 건축사 해석에서는 다양한 그림이 결과로 드러난다는 사실이다. 그리스 신전 건축에 대한 잘 알려진 설명들간의 해석적 충돌이 그 좋은 예라 하겠다.³⁰⁾

29) M. Tafuri, 'The Sphere and Labyrinth',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1987, P. 1

30) Winkelmann은 그리스 신전을 고상하고 숭고한 조형 예술의 걸작으로, Zevi는 내부공간을 결여한 非建築으로, Scully는 회랑 神話와 물리적 환경(setting) 사이의 장소적 관계에서, Doxiadis는 극좌표의 배치

J. E. Hancock은 건축사 해석의 내조적인 두 경향으로 '의도(intention)을 발견하려는 데 주안점을 두는' 역사와 '해석(interpretation)을 공식화하는 데 강조점을 두는 역사'를 들고, 양자의 차이는 어떤 것이 건축사적 탐구의 보다 가치 있는 형식인가 하는 방법론적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전자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혹은 발생했는가?" (How did the building happen?) 라는 질문에 대답하려는 입장에서 생산자(건축가)의 본래 의도의 설명, 당시의 시대 상황 및 건축 과제(building task)의 제약 조건 등의 관계에서 과거를 보려는 것이라면, 반면 후자는 과거 건축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인가? (What is the building to us) 라는 질문에 답하려는 입장으로 동시대(우리 시대)의 이론적, 미학적 관점과 선호에서 과거를 설명하려는 것이라는 것이다.³¹⁾

이들 두 접근은 달리 말하자면 역사적 기원(origin)에 대한 관심과 현재 이곳에서 유용한 의미 추구 사이의 입장의 차이—즉 어떻게 과거 건축이 실제로 생산되었는가와 어떻게 과거가 오늘 우리에게 지각 되는가—라 할 수 있겠는데, Hancock은 양자가 전적으로 배타적인 것은 아니며 양립 가능성(compatibility)이 있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즉 이 두 가지 해석 유형이 건축사 탐구에 모두 필요하다는 것이다.



체계에서, Hersy는 당시의 제례(ritual)와 관련하여, Corbusier는 표준(standard)을 적용한 선택과 진화의 산물로 보았다.

31) J. E. Hancock, 'History in , of, and for Architecture', p. 5.

옆의 그림에서 원 A는 건축물의 생산을 나타내는 것으로 건축가(생산자)의 말과 생각, 이미지—즉 의도—를 통해 실제 건물이 세워지는 과정을 의미하며, 원 B는 일단 세워진 건물이 생산(자)의 본래 의도와는 무관하게 사용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의미를 형성하며 회자되고 평가됨을 나타낸다. 여기서 A를 건축의 생산 과정, B를 건축의 수용 과정으로 볼 수 있는 데, A의 천착에 보다 탐구의 비중을 두는 역사가 '의도'(intention)를 추구하는 건축사이며, B의 천착에 보다 비중을 두는 역사가 '해석'(interpretation)을 추구하는 건축사인 것이다.³²⁾

지나치게 단순화한 감이 있으나 실상 이 두 대조적인 해석 상의 접근의 차이가 해석학에 있어서 대표적인 두 이론 및 입장의 차이와 일치하며, 이 양자의 인식론적 견해의 상이함과 방법상의 갈등은 Hancock이 본 것보다 훨씬 까다로운 해석학적 난제로 떠오른다. 여하튼 건축사에는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현재에 재현하고자 하는 해석적 전통과 과거가 현재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에 치중하는 해석학적 전통이 공존해 왔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III. 소결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는 建築史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났던 건축적 事實이라기보다 역사가에 의해 해석되고 쓰여지는 것이라는 견해에 도달하게 된다. 말하자면, 건축사란 과거에 이루어진 건축 활동 그 자체, 혹은 그것의 기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建築史家가 가지고 있는 역사를 보는 視覺에 따라 어떠한 논리와 방법에 의하여 여하이 체계적으로 정리 설명되고 記述되었는가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건축사를 쓰는 일은 심하게 말하자면 史家의 시각에 따라 과거를 변형시켜 재창조하는 행위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建築史家가 지닌 역사를 보는 상이한 관점과 이론은

32) Idid. P. 59.

Porphyrrios의 말마따나 역사의 方法論的인 도구이자 자체의 이데올로기적 가정인 것이다.³³⁾ 이렇게 볼 때,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건축사란 이러한 건축에 대한 해석의 역사들(解釋史)로 이루어진다고도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상이한 관점과 이론에 따라 쓰여진 허다한 건축사가 존재하게 되며, 이들 입장을 달리하는 다양한 건축사는 건축과 역사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원천이 되기에, 각기의 역사가 건축에 대한 시야를 넓혀주는 한 가치 있고 유용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무한한 역사적 分析이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해석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解釋이 장점과 우월성을 가지려면 그 풍요성, 즉 그것이 폭넓게 역사적 사실을 해명해 줄 수 있어야 하며, 아울러 그것이 능히 시대의 관심사와 문제를 조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건축사에서는 사실에 합치되는 타당한 관점과 해석이 여럿 있을 수 있으며 아울러 각각의 해석 방법 내지 史觀은 자체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여기서 우리는 건축사 해석의 '개방성'과 '다원성'을 용인하고, 건축사 해석의 가치와 평가는 그것이 새로운 문제와 관심을 제기하였는가?, 새로운 地平을 열어 주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보다 설득력 있고 설명적인(explanatory) 분석을 제시해 주었는가? 라는 측면에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런 입장은 해석의 배타성(독단주의)와 주관주의를 회피하는 동시에 모든 해석을 동등하게 보는 역사적 상대주의로 빠져드는 것을 피하게 해준다. 동시에 경쟁하는 해석들간에 존재하는 의미의 多層性과 多樣性을 인정하게 하고 건축사 해석에 있어서 生産性에 더 비중과 큰 가치를 두게 한다.³⁴⁾

건축사의 해석작업이 과거 건축을 현재에 다시 살려내려는 능동적 행위라면 — 즉 역사적 거리와 문화적 거리를 뛰어 넘으려는 시도라 한다면

— 그것은 Gadamer가 설파한대로 현재 우리 자신의 역사적 상황과 意味 地平(horizon)으로부터 他者인 과거의 지평이 융합하고 만나는 일인 것이다. 과거 건축을 해석하는 주체인 현재의 우리는 역사 속에 살며 역사에 속박되어 있는 存在이기에 현재의 우리의 선입견과 입장(現在의 地平)에서 과거를 바라볼 수밖에 없으며, 동시에 해석 대상인 과거의 건축은 역사적 맥락(context) 속에서 오늘의 傳統의 일부를 이루면서 현재를 규정하는 힘으로 작용하는, 현재 속에 있는 과거이다. 따라서 현재의 입장에서 과거를 보고 동시에 과거에 비추어 현재를 이해하는 이러한 解釋學的 對話(Hermeneutic dialogue)야말로 兩者의 지평을 융합하여 새로운 시야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³⁵⁾ 이러한 건축사 해석은 과거 건축과 현재의 상황을 끝없이 매개하면서 진행되기에 그 자체가 하나의 역사성을 띤 현상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설 때 우리는 건축사를 주로 생산의 역사—building의 역사—보아오던 종래의 시각에서 벗어나 수용의 역사—지어진 것에 대한 반응과 해석의 역사—로 보게 되고, 그것이 쓰여진 것으로서 건축사를 구성하며 우리의 과거에 대한 인식을 결정한다는 데 주목하게 된다. 또한 우리의 과거 건축에 대한 인식을 지배하는 건축사 해석의 변천사로서 건축사학사의 중요성을 의식하게 된다. 시간의 경과를 과거 건축에 대한 우리의 질문을 변화 시키고, 이는 문제를(problematic)과 관점의 이동을 수반한다.³⁶⁾ 건축사 해석은 항상 記述 당시의 시대 상황 및 요구와 맞물려서 수행되어 왔으며, 동시에 이미 쓰여진 건축사를 텍스트 삼아 그것을 확장 보완하거나, 지양 극복하거나, 해체 전복하는 사학사적 전통을 만들어왔다. 해석의 역사로서 건축사학사는 동일한 역사적 사건, 주제를 텍스트로 삼아 상호 경쟁하는 여러 해석들이 계속 쓰여지고 공존해 온 역사

33) D. Porphyrrios, ed. 'On to Methodology of Architectural History', AD profile, 1981, P.2.

34) 강 역, 「서구 근대 건축사의 記述과 解釋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92, chap. III.

35) H.G. Gadamer, 'Truth and Method', P. xxxiv.

36) S. Anderson, "The Prensertness of interpretation and of Artifacts" in 'History in, of. for Architecture', P. 49-57

인 한편, 선대의 건축사 해석의 영향 하에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지속적인 해석의 생산 과정으로 인식되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건축사학

사는 지속적인 텍스트의 재해석의 역사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³⁷⁾

37) 결국 건축사학사는 시간의 경과에 의존하는 意味의 변증법적 변모를 추적하는 일인 것이다.

C. Jencks, "History as Myth" in 「Meaning in Architecture」. London, The Cresset Press, 1969, P. 265.

A Study on the Hermeneutic Dialogue in Architectural History

Khang, Hyuk

ABSTRACT

The Main concern of this thesis is on the possibility to apply Hermeneutics to architectural history, with a view point that the past architecture can be seen as a text, this study analys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st building and interpreter, the epistemological tool for interpretation and historian.

After reviewing the characteristics of architectural history with regard to text theory, this study can lead to the conclusion that the interpretation of past architecture can be defined as dynamic dialogue which depend upon the time.